

이에 맞서 일본군은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들은 정예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영호도회소의 혈로를 막았으며,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영호도회소는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과 양반과 향리 계층의 반민족적 배반행위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다. 그러나 영호도회소가 지향한 민족의식과 평등사상 및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은 길이 남을 것이다.

제2절 한말의 의병활동과 광양

19세기말부터 일본의 조선 침략이 가속화되었다. 즉, 일본군의 경북궁강점(1894. 7. 23), 명성황후시해사건(1895. 10. 7) 등이 그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의병항쟁은 1904~5년을 전후하여 격화되었다. 1904년의 한일 의정서(2. 23)와 한일협약(8. 22), 그리고 1905년의 을사조약(11. 18) 등과 같은 일제의 정치적 침탈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1907년 후반이후 약 2년여 동안 의병투쟁은 가장 격렬하여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가 고종의 강제퇴위(7. 19)와 한일신협약(7. 24) 그리고 한국군의 해산(8. 1) 등을 단행하여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침탈도 병행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선의 국권이 날로 침탈됨에 따라 의병에 투신한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였다.

1907년부터 약 5년간 일본 군경과 교전한 의병의 숫자는 14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만 14,566명의 의병이 일제의 총칼에 의해 살육당하였다. 당시 의병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리고 의병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음은 이미 박은식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⁸⁷⁾ 그는, 각 도별로 활동의 다소를 논할 때 전라도가 가장 많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후일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1908년 일본군경과의 교전회수(交戰回數)와 교전의병수(交戰義兵數)에서 전라도는 각각 25%와 24.7%를, 1909년에는 각각 46.6%와 59.9%를 차지함으로써 박은식의 주장이 입증된다.⁸⁸⁾ 따라서 1907년 이후 전라도의 산간내륙

87)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서』 상, 1975, p.24.

88)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pp.294~6.

이나 평야지대 및 도서지방을 막론하고 마을마다 의병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전라도에서는 1896년 봄 장성(長城)과 나주(羅州)를 중심으로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장성의병은 조선후기 거유(巨儒)였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제자이자 손자인 기우만(奇宇萬)의 주도로 의병을 일으켰으며,⁸⁹⁾ 나주에서는 유림과 향리가 연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을 목표로 반개화(反開化) 활동과 더불어 복상할 준비를 갖추었다.⁹⁰⁾ 하지만 고종의 해산명령에 따라 모두 해산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의병을 일으키거나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말의병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봉기했던 1896년을 전후한 시기에 광양지역은 비교적 조용하였던 것 같다. 당시 의병들이 대체로 전라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어나 동부지역까지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1906년 후반부터 광양에서도 의병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그 후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황병학(黃炳學)·안규홍(安圭洪)·조규하(趙圭夏)·강진원(姜振遠; 姜承宇)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장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맞서 투쟁하였다. 먼저 광양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백낙구의 의병투쟁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백낙구의 의병활동

백낙구(?~1907)는 전주 사람이었으나 광양 백운산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킨 독특한 인물이다.⁹¹⁾ 그는 전주의 향리(鄕吏) 집안으로 추측되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을 진압하는 초토관(招討官)으로 활동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주사(主事)에 임명되어 관료로 재직하였으나,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썩어빠진 정치의 난맥상에 실망하여 곧 사직하고 말았다. 그후 중국으로 건너가 만주 등지를 유력(遊歷)하다가 눈병에 걸려 귀국하였으나 영영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양의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하여 눈병을 치료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 무렵,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실명한 상태에서도 의병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수소문하였다. 1906년 1월, 그는 기우만이 주도하는 곡성(谷城)의 도

89) 金 湏, 「韓末 長城의 義兵 抗爭」, 『광주교대 논문집』 21, 1981. 李相寔, 「韓末의 民族運動-장성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2, 목포대, 1985.

90) 홍영기, 「1896年 羅州義兵의 結과 活動」,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下, 일조각, 1994.

91) 黃玆, 『梅泉野錄』 권 5, 국사편찬위원회, 1955, p.395.

동사(道東祠) 거의(學義)에 참여하였으나, 위낙 호응이 적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전북 태인에서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곧바로 태인의병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으나, 가던 도중에 최익현이 이끄는 태인의병의 패전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도 그는 아쉬운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광양에 돌아온 그는 직접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물리칠 결심을 하였다.

1906년 중반, 그는 먼저 장성의 기우만, 창평의 고광순·이항선 등 의병을 일으키려는 우국지사들과 연락하며 창의날짜와 장소를 물색하였다.⁹²⁾ 이들은 의병의 패인이 훈련의 미숙과 무기의 열세에 있다고 판단하고서 깊은 산중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리산에 위치한 구례의 중대사(中大寺)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백낙구는 진주의 실직(失職)한 군리(郡吏)들을 가담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1906년 10월에 일제의 지방제도 개혁으로 쫓겨난 이들을 설득하여 의병대열에 합류시킨 것이다. 이들이 진주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하동을 거쳐 광양읍성의 점령에 적극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去七日(1906. 11. 7 : 필자주) 光陽郡에서 匪徒二百餘名이 郡守 를 結縛하고 一場 光景이 危急하였는데 그 根因인즉 今番 地方制度 改革으로 인하여 職業을 잃은 人들들이 旣州地方에서 亂을 圖謀하고 河東을 지나 會集한 모양으로, 各處를 騷擾케 할 勢가 있는데 光州警務顧問部에서 補佐員 4人과 巡檢 4人을 派送하였다더라.⁹³⁾

백낙구는 광양의 백운산을 거점으로 삼아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진주의 실직한 향리들을 규합하는 한편, 광양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병부대를 결성하였던 것이다.⁹⁴⁾ 1906년 11월 5일 약 200여 명의 의병을 모은 그는 약속한 날짜에 구례의 중대사로 향하였다. 그런데 기우만과 고광순 등과의 연락이 잘못되어 백낙구 의병부대만이 구례에 도착하였다. 이에 광양으로 되돌아간 그는 11월 7일에 광양 郡衙를 점령하여 무기와 군자금 등을 확보하였다.⁹⁵⁾

이어 순천을 습격할 계획이었으나, 날이 환히 밝아오자 취소하고서 삼삼

92) 『全南暴徒史』, 전라남도 경무과, 1913; 『비록 한말전남 의병투쟁사』, 전남일보 인서관, 1977, p.10 21-2.

93) 『萬歲報』 1906년 11월 15일자 「光陽匪擾」.

94) 각주 5와 같음.

95)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14일자 「光陽匪擾」.

오오 흠어져 구례의 약속장소에 다시 집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례를 공격했다가 이승조·이도순·이지상·권창록·안치명(치중)·김봉구 등 6명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이들은 곧바로 순천분파소로 압송되었으며, 후일 광주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았다.⁹⁶⁾ 그 가운데 안치명과 김봉구는 순천에서 탈옥하여 화를 면하였다.⁹⁷⁾ 나머지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백낙구 의병부대의 주요 구성원은 대체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불만이 많았던 전직 군리(郡吏)들이었던 것 같다. 아래의 인용문이 그러한 사정을 전해준다.

최의 잔당은 끊임없이 민심을 선동 도발하고 있었는데, 동년(1906) 11월4일 본도의 유생으로서 본디 최익현을 따르는 광양군의 백낙구, 장성군의 기우만, 창평군의 고광순 이항선 등이 관제개혁으로 실직한 전 군리 등과 통모하여 구례군 중대사에 모여 총원 50여 명(총기 10여 정)으로써 다음날 5일에 거사, 구례로부터 광양군을 통과하여 7일 순천에 이르렀는데⁹⁸⁾

백낙구 등이 실직한 관리들을 끌어들이 의병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실직 관리들은 대체로 진주출신들이었다.⁹⁹⁾ 이들은 진주에서 폭동을 도모하려다 백낙구와 만나게 되어 의병에 투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순천에서 광주로 압송된 백낙구는 신문(訊問)을 받았다. 신문과정에서 그는 의병에 투신한 감회를 솔직하게 피력하였다.

“슬프다. 오늘날 소위 大韓國은 누구의 대한민국인가. 과거의 을미년에는 일본공사 三浦가 수차 마음대로 군대를 풀어 대궐을 점거하니 만국이 이를 듣고 실색하였으며, 팔도가 원수같이 애통해한 이래 12년이 흘렀다. 위로는 복수의 거의가 없고, 아래로는 수치를 씻는 논의가 없으니 가히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伊藤博文가 더욱 모욕을 가하여 군대를 끌고 서울에 들어와 상하를 누멸하고서 자칭 통감이라 한다. 그 統이란 것은 무엇이며 監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5백년 종사와 삼천리의 강토와 이천만의 동포가 이웃나라의 적신 이토오에게 빼앗기는 바가 되었다.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수그러 분함을 외쳐보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에 백낙구는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동지를 불러 모으고 의병을 모집하여 힘껏 일본인 관리를 공격하여 국경 밖으로 내쫓고,

96) 『구한국관보』 1907년 4월 23 일자 및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자 「백씨流配」 참조.

97) 『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5일자 「五賊取招」와 1907년 1월 10일자 참조.

98) 『전남폭동사』, pp.21~2.

99)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14일자 「광양비요」와 「萬歲報」 11월 15일자 「광양비요」 참조.

100)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7일자 「敗將口供」 참조.

또한 이등박문을 사로잡아 의병장 최익현 등을 돌려받고자 하다가 시운이 불리하여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체포되었으니, 패군장이 감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에 사실대로 말하노라” 하였다더라.¹⁰¹⁾ (현대문으로 고침).

앞을 보지도 못한 장애인이었지만, 백낙구는 오로지 한국의 장래만을 걱정하였다. 그는, 한국이 누구의 나라인데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자칭 통감이라 하며, 삼천리 강산과 2천만 동포를 빼앗아 가느냐고 강력히 성토했다. 요컨대, 그는 성리학적 명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근왕의병보다는 보국의병(保國義兵)을 지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백낙구는 순천에서 활동중인 일본인들을 먼저 내쫓으려다가 붙잡히고 말았다. 결국,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아 1907년 5월에 완도군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2월 순종(純宗)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¹⁰¹⁾

고금도에서 돌아온 그는 전주(全州)의 의병들과 합류하여 전북 태인(泰仁)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전투의 형세가 불리해지자, 의병들은 백낙구를 부축하여 포위망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그는 “그대들은 떠나시오. 여기가 바로 내가 죽을 곳시오”라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 “백낙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며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이 때가 1907년 설달이었다.

백낙구의 활동에 대하여 황현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백낙구는 두 눈을 실명하여 전투할 때에는 언제나 교자를 타고 일병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패할 때도 교자를 타고 도주하다가 세 번이나 체포되었는데, 결국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라고 썼다. 의병장 백낙구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써 투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현은, 광양 사람들이 백낙구의 발발한 기운을 못 잊어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요컨대, 백낙구는 대한제국기의 유일한 맹인 의병장이었다. 백운산 자락에서 시작된 그의 의병활동은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101) 『구한국관보』 1907년 5월 6일자 및 12월 3일자 참조.



황현은, 광양 사람들이 백낙구의 발발한 기운을 못 잊어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요컨대, 백낙구는 대한제국기의 유일한 맹인 의병장이었다. 백운산 자락에서 시작된 그의 의병활동은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2. 황병학 의병부대의 활동

광양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은 앞도 보지 못하는 의병장 백낙

구였다. 하지만 백낙구 의병부대는 광양을 점령한 후 구례와 순천을 공격하다가 패진하고 말았다. 의병장을 비롯한 7명의 지도부가 체포됨으로써 봉기한 지 얼마되지 않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광양의 뜻있는 인사들이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았다. 진상면(津上面) 비촌(飛村)에서 살던 황병학(黃炳學, 1876-



사진2-89 : 국립묘지에 안장된 황병학의 묘

1931)의 주도로 거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종숙인 황순모(黃珣模), 구례의 한규순(韓圭順), 백학선(白學善), 고건(高堅) 등과 힘을 합해 백운산을 의병의 근거지를 삼았다. 백운산의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산세는 의병의 유격투쟁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운산의 남서쪽에는 조계산, 북동쪽으로는 지리산으로 연결되며, 섬진강과 광양만을 통해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지리적 조건이 구비된 까닭이었다.

드디어 1908년 음력 7월 하순, 백운산 먹배(墨栢)에 모인 약 200명 내외의 의병들은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화액이 머리에까지 박두했으니 얼굴에 상처를 입고 살 바에는 차라리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맹세했다. 이 자리에서 지략과 담력이 뛰어난 황병학은 32세의 나이로 의병장에 추대되었고, 황순모(1873-1908)는 선봉장을 맡았다.

당시 황병학 의병부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로는 진상면에서 농사를 짓던 이치관(56세) · 황민순(29세) · 이인열(38세) · 정석구(42세) · 김홍석(46세) · 문기홍(30세) · 김군익(42세) · 김응백(41세) 등을 들 수 있다.¹⁰²⁾ 그러나 김응백을 제외한 이들은 1908년 10월 일제의 귀순 정책에 따라 귀순하고 말았다. 이 밖에도 여수의 양지규 · 강양조, 고성 김모, 순천의 조응렬, 그리고 윤주경 · 최성초 · 정택호 · 이기효 · 황시모 · 박화춘 · 최내익 등이 활동하였다.¹⁰³⁾ 의병장과 선봉장은 혈친 사이였으며, 모두 비촌에서 태어났다. 비촌은 황씨 집성촌으로 황병학은 在模와 순흥 안씨 사이의 둘째 아들이었다.¹⁰⁴⁾ 황병학의 자는 영문(英文)으로 창원 황씨였다. 의병장의 종숙(從叔)이었던 황순모의 자는 사중(士重)이었다. 황병학 의병부대는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광양을 비롯한 전

102) 『한국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230-1쪽 및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74, 794쪽.

103) 黃炳學, 『黃珣模義士抗日闘爭史』, 1968, 105-151-2쪽.

104) 金楠 編, 『義士 黃炳學』, 전광산업사, 1983, 7쪽.

105) 위의 책, 12쪽.

106) 황병선, 앞의 책, 154
175-6쪽.

107) 김남 편, 앞의 책, 13쪽.



사진2-90 : 1908년 9월 황병학 의병부대가 무기를 제작한 생쇠골 야철지

108) 『光陽市の 護國抗爭遺蹟』, 순천대 박물관 광양시, 1999, 71쪽.

109) 『光陽郡의 文化遺蹟』, 순천대 박물관 광양군, 1993, 203쪽.

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농사를 짓거나 산포수들이 많았다.¹⁰⁵⁾

의병장 황병학은 백운산 먹배이 계곡의 임방골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의 부호로부터 군량과 군자금을 지원받았다.¹⁰⁶⁾ 또한 의병의 취약점인 화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백운산과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산포수들을 불러모아 무기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기를 제작하기 위한 야철로(冶鐵爐)가 백운산 억불봉 아래의 생쇠골에 만들어졌다. 당시 광양지역의 의병들은 철광석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생쇠골 바로 아래 평촌(坪村) 마을에 농기구와 솔 등을 만들던 철점(鐵店)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촌 마을의 철점은 흔히 「店터」 혹은 「店골」로 불렸으며, 채광한 굴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무쇠를 구입하여 백운산 본진으로 운반, 그곳에서 대장간을 차리고 창과 칼을 만들었다”¹⁰⁷⁾ 고 한다.

생쇠골에 있는 무기를 제작한 야철로는 현재의 용광로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규모는 높이 약 90cm, 하부 직경 약 1m, 상부 직경 1.5m로 위로 갈수록 약간 벌어져 있다.¹⁰⁸⁾ 이곳에는 상당한 양의 쇳

(slag)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철한 흔적으로서 황병학 의병부대의 무기제작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¹⁰⁹⁾ 이 밖에도 진상면 내회(內回)마을의 계곡에도 노점(爐店)골이 있는데, 이곳에도 의병의 무기제작과 관련된 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황병학 의병부대는 억불봉 아래 생쇠골을 비롯한 여러 곳에 야철로를 확보하고서 무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오를 정비하고 무기를 확보한 의병장 황병학은 먼저 망덕(望德) 포구를 차지한 일본세력을 쫓아내기로 했다. 당시 망덕포구는 전어철이 한창이었으나, 일본어부들이 독차지한 “황금어장”을 광양지역 어부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광양주민들의 불만과 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황병학 의병부대가 주민들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민(安民) 의병을 자처하며 나선 것이다. 황병학 의병부대는 이른 새벽녘 일본어부들을 기습했다. 당시의 상황을 일본측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8) 9월1일 오전 3시 비도 50명(양총 3·회승총 25)이 광양군 진하면 망덕리에 내습, 일인 어부 오가야마현 사람(岡山縣人) 가꾸노(角野仁三郎)와 그의 처 「이소」 및 장남 「아끼라(明)」를 총살하고 가옥을 불사른 다음 이 마을의 잡화상 고오지현 사람(高知縣人) 이시다(石田耕作) 집에 내습, 고용인 다카하시(高橋吉助)를 바다에 던져 익사케 하고 또 해안에 매어둔 일본어선을 불살랐다.¹¹⁰⁾

급습을 당한 일본어부들은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일제 군경은 곧바로 황병학 의병부대의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황병학 의병부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광양 옥곡원의 일본 군경을 공격하는 등 항일투쟁을 선도했다. 이 과정에서 원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황병학은 의병부대를 몇 개의 부대로 나누어 활동케 한 다음, 자신은 백운산 용신암에 은신하여 부상을 치료했다.¹¹¹⁾



사진2-91 : 1908년 9월 황병학 의병부대가 일본어선을 불태운 망덕포구 전경

어느 정도 몸이 완쾌되자 황병학은 다시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일제는 대규모의 군경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의병에 대한 회유공작도 병행했다. 의병장의 부상으로 상당수의 의병들은 크게 동요되었고, 일부는 몰래 빠져나간 경우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비촌 마을에 사는 황씨 일족들의 곤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즉, 황씨 집성촌인 비촌마을 주민들에게 온갖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으며, 황병학과 황순모의 집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했다.¹¹²⁾

더욱이 계절은 바뀌어 낙엽이 지고 눈발이 날리는 초겨울로 접어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겨울산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 했다. 이에 황병학 의병부대는 다른 길을 모색했다. 황병학은 해산을 거부하는 의병들을 이끌고 여수의 묘도(猫島)로 잠적하여 재기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그의 종숙 황순모 한규순 등 몇몇 의병들은 가족들의 후환을 걱정한 나머지 귀순했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¹¹³⁾ 묘도에 잠적 중이던 황병학 의병부대도 일본 군경에 발각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백학선 등 상당수가

110) 『전남폭도사』, 62쪽.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이 남아 있어서 참고로 제시한다. 광양 진상면 어치동에서 거주하다가 황병학 의병부대에서 활동한 김응백의 판결문의 일부이다. “피고는 폭도 수괴 황영문의 부하에 속하여 각지를 배회중 明治 41년 8월 5일 오전 3시경 재물 겁취를 목적으로 황영문 이하의 도당 1백50명 가량과 함께 총 및 칼을 휴대하고 전라남도 광양군 진하면 망덕리로 난입하여 그 마을에 거주하는 石田耕作 및 角野仁三郎의 집을 포위하고 발포하여 그 집사람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각야인평, 그의 처 久 및 장남 秋明, 동거인 高橋沖太郎 등 4명을 총살한 다음 각야인평 석전경작 집으로 난입하여 인명 소유의 양총 1정 외에 잡품 수검 및 석전경작 소유의 村田式 총 1정, 상품, 의류, 가구 등을 강탈하고, 또 피고는 기타의 부하와 함께 수괴 황영문의 지휘에 좇아 각야인평 가옥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집 두채를 소각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794쪽). 이로써 볼 때 일제 침략의 첩병구실을 하는 일본어부의 구축과 신무기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이들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111) 황병선, 앞의 책, 208, 215쪽.

112) 황병선, 앞의 책, 32-5, 246쪽.

113) 위의 책, 254·262쪽 및 김남 편, 앞의 책, 33-4쪽 참조.

희생되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이를 악물고 악전고투를 하다가 일제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전개되던 1909년 후반에 눈물을 머금고 해산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후 황병학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재기를 노리던 중 삼일운동을 맞았다. 민중들의 만세시위에 고무된 그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우국지사 奇山도와 만났다.¹¹⁴⁾ 고흥에 은신중이던 기산도는 5적암살단을 결성하여 매국노 이근택을 살해하려던 열사였다.¹¹⁵⁾ 황병학은 기산도와 함께 임시정부국민대회 특과위원의 자격으로 전라도의 뜻있는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았다. 그리하여 평안도까지 함께 올라갔으나 황병학만이 압록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명을 띠고 귀국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고 말았다.¹¹⁶⁾ 1927년 평양감옥에서 출옥한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다. 고향 비촌을 둘러본 후 발길을 돌리려던 그를 병마가 붙들었다. 오랜 항일투쟁의 여독과 고문의 후유증이 깊었던 그는 1931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¹¹⁷⁾ 그의 의병활동에 관한 얽히고설킨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백운산 골짜기에 구전되고 있다.

3. 광양의 의병활동과 새로운 모색

광양의 백운산 등 높고 깊은 산이 위치한 섬진강을 사이에 둔 지역에는 의병이 크게 늘어났다. 지리산은 전남·전북·경남 지역의 의병들이 몰려 들었다. 예컨대, 광양의병 수십 명이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보성출신의 안규홍, 순천출신의 강진원과 조규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안규홍은 흔히 안담살이라 불려졌는데, 전남 동부지역의 전설적인 의병장이었다.¹¹⁸⁾

그는 처음에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순천에서 활동중인 강용언(姜龍彦) 의병부대에 투신하였다.¹¹⁹⁾ 강용언은 토착농민의 대표인 안규홍을 부장(副將)에 임명하였다. 강용언 등이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리에 어두워서 토착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병장 강용언은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등 주민들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주었다. 이에 안규홍을 중심으로 한 토착의병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출범

114) 『韓國民族運動史料』 2, 국회도서관, 1978, 499-501쪽.

115) 『皇城新聞』 1906년 2월 19일자 「軍大被刺顛末」.

116) 김남 편, 앞의 책, 23-4쪽.

117) 위의 책, 25쪽.

118) 안규홍 의병에 대해서는 줄고, 『대한제국시대 호남의 병 연구』 제6장과 강길원, 「담산 안규홍의 항일투쟁」, 『손보기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참조.

119) 『전남폭도사』, p.137.

시켰다. 이후 의병장 안규홍은 순천의 조계산과 보성의 동소산·석호산, 광양의 백운산 등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순천·보성·광양 등지를 중심으로 돋보이는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제 광양에서의 의병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의병의 첫째 목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의병은 일제의 군경과 맞서 싸우거나 일제의 시설물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의병들은 일본의 수비대와 헌병대, 순사대 등의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간혹 세금징수와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체송인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08년 9월초 진상면 역불봉전투가 그것이다. 당시 의병들은 근거지가 노출되었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¹²⁰⁾

120) 『전남폭도사』, 63쪽.

의병의 둘째 목표는 친일세력의 처단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친일세력은 일진회(一進會)였다. 의병들은 일진회원을 만나면 죽이거나, 그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그들이 의병의 행적을 일제의 군경에게 낱낱이 밀고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양의병은 1908년 3월 진상면의 일진회원 3명을 살상하고, 집을 불살랐으며 거둔 세금을 징발하였다.¹²¹⁾

121) 『한국독립운동사』 9, 285쪽 및 『전남폭도사』, 3742쪽 참조.

의병의 마지막 목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의병들은 본래 농사일을 하는 농민이거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 국가적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의병에 나섰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의병들은 주로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을 공격하였다. 예컨대, 황병학 의병부대가 섬진강 하류의 광양 망덕에 이주한 일본인 어부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선을 불태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본측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의병이 일본 농어민의 한국 진출을 적극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당시 일제는 자국의 농어민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농어민들은 한국인 소유의 농지와 어장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한국의 농어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따라서 의병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농어민 이주자들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또한 의병들은 우편체송인들을 무차별 공격하였다. 광양의병은 옥곡면 선적리(仙迪里)에서 우편체송 일본인 상학전길(上鶴傳吉)을 공격하여 우편물을 노획한 바 있다.¹²²⁾ 그들도 세금징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장이나 이장 등도 징세업무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의병들의 표적이 되었음

122) 『전남폭도사』, 31쪽.

은 물론이다.

물론 의병의 활동이 거세어질수록 일제의 대응도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귀순을 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와 경찰병력을 증강 배치하여 의병진압에 열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마수에 걸려 광양에서 활동하던 황순모와 한규순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 한편, 광양의 의병들은 사찰을 활동거점이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 백운산에 있는 上白雲寺와 下白雲寺 등을 근거지로 이용하였는데, 이를 눈치챈 일제는 승려들을 하산시키고 절을 폐쇄시켜 버렸다.¹²³⁾

백운산을 끼고 있는 광양지역이 의병활동의 중심지로 떠오르자, 일제는 대규모의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지역의 의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여단규모의 임시과건대를 투입하여 두달간 진압작전을 펼치려는 것이었다.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 그것이다. 일제는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을 총동원하여 전남지역 의병을 진압하려는 것이었다.

이 기간중에 자행된 일제의 만행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황현은, “일병들이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그물치듯 사방을 포위하였으며, 촌락마다 살살이 수색하고 가가호호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죽였다. (중략) 이때 사망자 수는 무려 수천 명이였다”라고 하였다. 진압작전이 끝났을 때 의병장을 비롯한 약 500명이 전사하였고, 약 2,000명이 붙잡혔다. 이와 같이 일제는 전남지역 의병을 철저히 유린한 후인 1910년 8월에 강제로 점령하였다.

일제의 의병학살작전에서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건진 의병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숨을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의병에서 독립운동으로 전환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광양의병을 주도한 황병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특파위원으로 활약하던 중 1923년에 체포되어 3년 동안이나 일제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광양지역에서도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23) 『한국독립운동사』 9, 252~3쪽.